

'도화' 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연구

하일천* · 양성원

초 록

중국은 다양한 민족의 형성과 아울러 문화의 유구한 역사를 대변하는 문명대국이다. 21세기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선진화되었다. 특히, '중국풍(中國風)' 스타일의 패션디자인은 세계무대에까지 등극하였다. 최근 중국 전통문양은 대중들의 관심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전통 '도화(桃花)' 문양의 조형미와 상징성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 전통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을 시도해 보았다. '도화' 문양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양의 전통성과 중국의 길상(吉祥)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II장 본론에서는 전통공예품에 응용된 '도화' 문양을 고찰하였다. '도화' 문양은 '봄', '벽사', '미인', '장수', '사랑' 등 길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각지 박물관에 소장된 '도화' 문양 공예유물을 조사하며, '독립형(도화문양만 등장하는 단독표현)'과 '조합형(타 사물과의 혼합된 표현)' 등 2가지 디자인 표현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이를 통해 '도화' 문양의 적용은 전통유물은 물론 21세기 디자인 콘텐츠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도화' 문양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해 보았다. 또한 색채구성에서는 중국의 강렬한 고유색을 연출해 보았다. 마지막 C·G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패션아이템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첫째, 전통문양과 길상적 의미를 담은 모티브를 활용한 현대적 텍스타일디자인의 다양한 개발과 생산 등 현대적 해석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둘째, 현 패션디자인 분야의 전통소재 활용은 시대적 유행주도와 계승적 가치를 충족한다. 셋째, 전통과 현대를 초월한 텍스타일디자인은 한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및 국제화에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더욱 다양한 전통문양들의 디자인 현대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가능성과 시대를 초월하여 한 국가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으로서의 기여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중국 전통문양, 도화 문양, 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 개발

I. 서론

21C 중국의 패션산업은 경제성장의 부응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 생산기지(基地)이자 소비시장이 되었다.^① 이에 따라, 중국 패션브랜드들은 더욱 글로벌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생산하며, ‘중국풍(中國風)’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도화(桃花)’는 중국 전통 꽃의 일종으로 관상(觀賞)적 가치와 약용(藥用)가치가 있고 중국 고전문학, 예술작품, 전통 민속 및 의학 서적에 자주 등장한다. 이렇듯 ‘도화’ 문양은 중국의 전통문양으로써 꾸준히 활용되어왔다. 본 연구는 21세기 중국의 패션시장 현황에 발맞추어 ‘도화’ 문양의 활용 방안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도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전통문양으로써의 가치를 발견해보며, ‘도화’ 형태를 활용하여 문양의 조형미와 전통적 상징성을 내포한 현대적 감각의 텍스타일디자인으로 개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중국 전통문양의 사적고찰을 통해 ‘도화’ 문양의 디자인 표현과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도화’의 독특한 길상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연구과정을 통해 여러 박물관의 소장된 유물들을 조사하여 ‘도화’ 문양의 조형적 특징과 도자기, 음식형태, 의상, 공예품 등 생활 속에 활용되었던 기능적 범위에 대한 유형을 분류해보았다. 연구의 핵심인 디자인 개발과정에서는 ‘도화’ 문양의 전통문화적 의미와 미적 특징을 추출하여 ‘도화’ 문양의 이미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약 5종의 텍스타일 디자인 작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색채의 전개는 고유하고 개성적인 전통색의 특징을 살려 생동감 있고 원색적인 배색을 시도해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영장학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장청추, 「중국 전통 길상 어(魚)문양을 응용한 중국 기업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동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No.50(2018), p. 349.

① 沈蕾·杜芹平·于君英·李宏·喻葵, 『中國市場服裝品牌價值研究』, 清華大學出版社, 2010, p. 2.